

韓國建築意匠에 對한 고민과 갈등

金興坤

(忠北大學校 工學博士)

1.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은 없다.

建築士는 우리의 世帶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다. 綿綿히 이어져나갈 것이다.

干先 當場에 젊은世帶들, 새로운建築士들, 새로히 誕生된 우리의 스타들이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이 없다. 우리世帶들, 現在의 建築士들, 즉 우리는 依支할 傳統이 있었다. 아무리 적다고해도, 우리가 依支할수 있었던 傳統은, 그래도 많이남어있었다. 그런데 이 傳統을 우리가 그동안에 다消化하지 못하고 現在 吐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다음世帶들에게 処分하라고 내밀고 있는 現在에 와있다. 이말이 좀 甚했을까. 冷情하게 生覺하여 보자. 우리가 依支할 수 있었던 傳統을 우리가 다 消化했을까.

1945年을 反省하고 1970年以後의 現在볼 수 있는 그러한 空間과 外觀이 과연 옳았을까. 日本이 1950年에 밝아왔던 그 方式대로 지금에서 우리의 옛것을 되새기는 그러한 空間과 外觀이 과연 옳을까. 옳았을까하고 묻는것과 옳을까하고 묻는것은 過去와 現在에 對한 質問이다. 過去에 그렇게했어야 할것을 現在에 하고 있고 現在에 하고 있어야할것을 過去에 해버렸다. 우리가 다음世帶에 물려주어야 할것은 먹어버렸고, 우리가 먼저먹어야했고 이미 消化되었어야 妥當했었던것은 消化되지 못하니 吐해낼수 밖에 없다. 그래놓고 지금에서와서 젊은世帶들에게 그것을 먹어보라고 한다. 洋果類를 먼저먹으면안되니 우리의 것, 우리의 意匠을 먼저 消化하라고 야단이다.

1950年代에 日本이 西洋建築을 日本化하면서 10年, 20年씩 消化하면서자라나 1970年代가 되고, 결국 1980年代의 문턱에 왔고, 우리는 1950年代에 6.25와, 1960年代의 격동기와, 1970年代의 好況에서 1980年代에 와 있다. 日本은 世界的인 建築으로 그네들의 意匠이 이미 발돋움을 하였다. 우리는 洋果類를 現在즐기면서 第2世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즉 우리처럼 불쌍(?)하게 되지 말고, 우리처럼 물려줄 資産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네들의 第2世들을 爲하여 依支할 傳統을 構築하라고 한다. 第2世들에게 洋果類, 洋式意匠을 조심해서 挾하라고 겁을 준다.

이것이 過然옳을까. 이것이 道德과 倫理面에서볼때 옳을것일까. 우리들의 先祖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綿綿히 우리의 意匠을 消化하면서 後世의 糧食을 取하거나 없애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할必要조차 없었다.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때에는, 그러한 어떤倫理속에서 生活하여 왔으며 또 그곳에서 成長하여왔다. 그래서 우리의 世帶는, 옛것에 對하여 몸에배어있어서 所謂 體驗이 되어있으나, 우리의 스타들은 그몸에 本體驗을알려고해도 斷絶된 感情이 前提되어 있기 때문에 비위가 몹시 傷해 있는것이다.

즉 우리주변의 建築意匠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 날조된 形象이 오히려 正常인것으로 알고있는, 그러한 2世에게 어떠한 것을 주어서 어떠한 것을 傳承 시켜야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消化하지 못한것은 우리의 責任이지 第2世들의 債務는 아니다. 우리는 옛것에 對한 體驗에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空間과 外觀을 만끽하면서 어떤意味에서도 自意이든, 他意이든, 享樂하여왔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많이 設計하기 爲하여, 그리고 享樂하기 爲하여 무진애를 다쓰고 있다. 이러한 무진장의 勞力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에 對한, 우리들을 爲한 勞力이지 다음世帶에게 어떻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生覺이 前提된 行動은 아니었다. 적어도 歷史에 對한 無分別이 앞섰던形式이지 理念, 즉 어떤 哲學의理念이 前提된 뜻깊은 設計나 意匠은 아니었고 施工 또한 아니었다. 自己慰樂과 포만적만족으로 現在가 進行되었고 未來를 斷絶시켜왔다.

結局, 問題는 30年前 日本이 걸었던길을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옳을까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의 全力이 그쪽으로 쏠릴때 日本은 우리보다 얼마나 앞서나갈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 격차는 영원히 줄일수 없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日本만을 比較하는것은 東洋의인 思考때문이다.

中共은 斷絶된 世界임으로 論外가 된다) 다른쪽을 生覺하여 보자.

未來指向의이지 過去指向의인 것은 아니다. 未來를 爲하여 建築이 存在하는것이므로 過去의 것은 잊어도 된다는 生覺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만의 建築意匠도 버려도 좋다는 生覺을 하게 된다. 그리고 世界에서 現在 내닫

고 있는 空間과 外觀을 創作해나가야하고 世界的인 그네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걸을수 있는 方法은 오직 이길뿐이라고 강조하게된다. 全力投球해도 잘되지 못할일인데, 過去指向的으로 되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後退만 있게될 것이며 결국 2세에게 물려주게되는것은 後退된 것까지 包含된 오로지 前進만을 要求하게되는 結果가 되는데 그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게된다. 簡單한 비유적인 質問으로는, 洋式果類를 우리가 계속 즐긴것인가 혹은 우리의 것을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消化해나갈것인가. 어느것이 옳은가, 두가지가 다옳은가, 두가지가 다틀리는가, 이를 区分해 나가야 할 時点에 와있는 것이다.

2. 우리의 建築은 線의 建築이다

우리의 建築만이 線의 建築은 아니다. 日本의 것도 中國의 것도 線의 建築이다. 中國의 것은 大陸人답게 그 線의 建築을 余有있게 즐기고 包括한다하고, 日本의 것은 섬사람답게 그 線과 더불어 快樂追求속에 縮小시킨다 하고, 우리의 線은 兩大勢力사이에 끼어 늘 不安에 떠는 선율적인 線의 建築이라고 비유한 者(日本人)가 있다. 「半島라는 것이 드디어 이나라의 運命의 方向을 決定하였다.」고 전제하고, 極동을 이루고있는 세나라가 어떻게 다른 歷史와 藝術을 나타냈는가를 記述하였다. 즉 中國은 大陸이어서 大地에 平安을 누리고 意志가 강경한데 對하여, 日本은 섬나라이니 大地에 즐거움을 느끼고 人情은 安樂하다고 하였으며, 韓國은 땅에 平安을 얻지 못하고 그마음이 靜寂하다고 하였다.

造形美의 表現에 있어 강경함은 形을 擇하고, 安樂함은 色을 求하나 靜寂함은 線을 取하였다고 하면서, 中國의 藝術이 意志의 藝術이고, 日本의 藝術이 情趣의 藝術이었으나, 그사이에 홀로 悲哀의 命數를 지니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하였다. (趙要翰의 藝術哲學 P. 177)

이말을 긍정적으로 받는경우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두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부정적인것은 우리의 世帶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피해왔다. 여기에서 밝히고저하는것은 긍정적인面이다. 우리의 根性은 어떤것인가. 그렇게 同情的일수가 없다. 이 同情은 上向으로 調整되는 行爲가 결코 아니어서, 下向으로 調整되는 이 絶對的行爲가 우리 주변의 어떤하나의 傳統인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것인가.

下向으로 調整되는 이 同情은 선율적이다. 그리고 女性的이다. 늘 悲劇的인 것에 對하여서만 안방에서의 눈물과 同情이 그치지 않았고, 그 悲劇的인 것은, 그리고 이 同情的行爲는 自己滿足을 가져다주었으며, 建築行爲도 例外는 아니어서 나보다 잘된 建築보다는 내가 한것보다 잘

안된 建築, 그래서 竣功되고 난 뒤 困惑을 겪고있는 그에게 더없는 따뜻한 同情을 주는 그 行爲속에서 快感을 느끼는 그 根性은 어떤 선율의 線인가. 우리가 걸어왔던 過去에서, 우리가 接하여왔던 現實에서, 悲劇的인 文學과 演劇과 映画에 對한 연민의 情을 얼마나 많이 生活속에서 發見해 왔던가. 기차길위에서 노는 어린이를 向해 달려오는 汽車를 본 그 어머니가 등을 汽車에 돌리고 어린이를 밀어내어 살리는 그러한 母性속에 우리가 자라왔다.

즉 西洋의 어머니가 등위에 어린이를 감추고 汽車를 向해 正面으로 맞서는 것과는 격심한 差가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커왔다. 殺身成仁의 뜻이 숨겨져서 이루어지는 母性속에 우리의 線이 떨리면서 存在한다. 물을 數十里 밖에서 걸어날려서 번돈으로 낭군을 유학시키고 결국 그 낭군한테 쫓겨나도 自己子息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一念으로 물장사를 계속하는 그 母性속에 우리世帶는 커왔다. 그리고 그 母性은 子息한테 속았어도 결국 自己 잘못으로 늙어갔다. 우리의 老建築도 自己잘못으로 하고 늙어갔다.

1900年代에서 1945年代까지의 45年間이 몇千年의 歷史를 속였어도 우리의 老建築은 自己잘못으로 하고 늙어간 것이다. 1945년에 對한 새로운 기대는 싹이 트지도 못한채 1950年의 6.25를 당했고 폐허속에서 숨들릴 겨를도 없이 파동과 격랑속에서 1960年의 5.16을 보았고 그리고 1970年의 好況을 맞이하였다. 이때의 好況에도 우리의 老建築은 계속 늙어갔고 새 世帶인 우리는 그 둥지에서 떠난지 이미 오래되었다. 洋果類에 몸이 밴 建築士가 누덕이가된 삼베 저고리를 입은 물장사 어머니를 찾기에 는 너무나 世帶의 差異가 많았고 自己의 空間內에 이 傳統的空間을 부쳐두기가 참으로 困惑스러웠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의 建築士는 故郷을 잃지는 않았다. 第2世들에게 삼베의 품을 알려야 한다고 권하면서 老母인 建築을 찾게한다. 그 품안이 眞實되고 참다운 母性이었다고 參회하고 또 그렇게 體驗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록 傳統을 줄 수 있는 바탕을 2세에게 주지 못할망정 그네들의 그다음 世帶에게는 우리처럼 똑같은 行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그네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依支할 傳統은 있었으나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은 없다는 것이다.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畵寧쿨의 線을 權유하나, 정몽주는 이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하면서 백골이 진토되는 擘막힌 面壁的 抵抗과 傳統을 고집하였을때, 가차없이 그 畵寧쿨은 그 壁의 목을 치고만다. 여기에서의 線은 강인하다. 앞에서의 線은 떨리는 선율적 線이며, 늙어가는 線인데 反하여, 이곳의 線은 그렇게 強할 수가 없다.

3. 우리의 後世人들이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을 만들 수는 없는가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모든것이 傳統을 만들어가는 過程이라고 生覺하는 金鍾星(I.I.T教授)의 경우는 筆者를 몹시 思索하게 만든다.

金氏는 韓國人이 한 것은 다 韓國建築이어서 世界 어느 나라에서하든 韓國人이 設計하여 創作된것은 韓國化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氏의 경우는 少年期, 青年期를 이곳에서 充實히 지냈다는것이 前提되므로 그의 意見은 妥当하다. 즉 이 경우는 建築創作過程에서 作家가 자라난 韓國이라는 바탕이 결국 無心的再現이 되면서 建築에 表現되는 그 自体가 傳統이 될수 있다는 뜻이되거나 혹은 建築意匠過程中에 일어나는 精神的인 分析과 心理的인 價值, 그리고 創作의 情趣와 構想 및 表現의 內面性, 그리고 갈등등이 계속 반복되어 걸러지면서 最終의 歡喜는 결국 韓國化 되어지는 데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傳統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는것이 妥当할것 같다. 즉 이러한 두가지 思想의 바탕에서 誘導되어지는 作品일 경우, 그 傳統은 高次元에서 昇華된 建築으로 보아 하자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것이 妥当할 것이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作家가 자라나온 過程, 즉 韓國의 바탕을 얼마만큼 吸收했느냐 하는 것이 될것이다.

다시 말해서 韓國的인 바탕에서 少年期 青年期를 充實하게 보낸 경우와 少年期부터 外國의 바탕에서 자라나오는 경우와는 많은 差等이 建築意匠過程에서 發生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理由는 建築意匠過程中에 일어나는 여러가지의 過程에서, 無我的 眞理가 곳곳에 스며들 수 있는데, 그 無我是 感受性이 예민했던 少年期와 青年期의 잠재의식에 많이 濃縮되어 은연중 自己의 再現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韓國化 되어질 수 있는 素地는 어느쪽이 더 많은가 하는것은 自明해진다. 少年期와 青年期를 情緒의 濃度가 짙은 韓國 땅, 그리고 韓國的인 情趣에 몸이 밴 建築士, 그리고 그러한 作家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들이 갈등과 고민을 많이하면 할수록 우리의 傳統은 綿綿히 지탱될 수 있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닐것이다. 創造로서의 建築이 古建築에 對한 모방으로 나타날때 이것은 자기기만이며 모작이다. 그렇다고 傳統은 創造되는 것은 아니다. 그 傳統은 數字나 紋樣이 一定하게 되어 있는것도 아니다. 傳統은, 우리의 傳統은 綿綿히 이어져온 우리의 理念이다. 그 理念은 韓國의 自然과 美속에 있으며, 韓國人의 理想과 美속에 있으며, 韓國美의 歷史的인 傳承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反省해야할 點이 있다. 즉 初步的인 世界속의 韓國建築이 始作된지 10有餘年, 이 期間이 비록 짧다고는하나 어느 우주인이 말한 「巨步」임에 틀림없고, 그 巨步는 後世의 우리建築史家가 傳統의 진통기였다고 말할수 있도록 깊은 自省이 必要할 것이다. 우리가 依支할 傳統은 있었음에도 우리의 2世가 우리에게 依支할 傳統이 없다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4. 위에서 論述된 韓國建築意匠에 對한 고민과 갈등은 우리의 傳統이 어떻게 만들어야하고 그리고 指向해야 하느냐 하는데 있다. 그 첫째는 創造의 情趣過程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創造活動의 当初에 建築士로서의 內面을 支配하는 漠然한 感情的인 發酵狀態에서 無形態의 素材의 體驗內容으로부터 建築의 形成에 이르고자 摸索하는 그리고 무엇인가 創造될 것 같은 感興에 젖을 때 韓國의 理念, 즉 우리의 自然과 美, 우리의 理想과 美, 우리의 歷史的인 傳承等을 일순간이라도 生覺해 본다면 그 意義는 클 것이다. 그 두번째는, 創造의 氣分으로부터 앞으로 誕生될 建築作品의 全體的形像이 漠然하게 案出되는 過程, 즉 建築創造의 心理過程中 最中心的인 位置에 있을 때 그리고 그 構想이 強한 意志와 冷靜한 思惟에 依해 能動的이며 意識的으로 될때 혹은 靈感作用에 依해서 受動的이며 無意識的으로 그 構想이 될때 한순간 만이라도 우리의 理念을 生覺하여보자.

그 세번째는 感情移入이 作用되는 內面的인 展開에서 즉 想像에 依한 形成活動이 主導的인 要素를 이루는 그래서 內面的으로 充分히 展開하여 점차 명료한 형태나 질서를 부여하는 過程에서 우리의 理念을 조금이라도 移入시켜보자. 그 네번째는 內面的인 展開에 依해서 成熟된 內面的인 想像形像을 一定한 物質的인 素材와 建築的인 技巧에 依해서 外面的인 形像으로 이끌어 客視的인 所與로서의 建築作品을 完成하는 過程에서 우리의 理念을 客視的으로 參與토록 하여보자.

이것은 하나의 案일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建築意匠에 對한 고민과 갈등은 바로 우리의 傳統이 어떻게 융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가에 있다. 이것은 나하나만의 고민과 갈등일 수는 없다. 우리 世帶가 같이 걸머져야할 課題인 것이다. 어느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單位者는 存在치 않는다. 傳統은 具體化된 主体性과 民族性과 全 建築士가 하나의 理念이 될때 存在하는 것이다. ■